

“광주학생독립운동, 세계 40여개국서 지지한 세계적 독립운동”

# 내년 90주년 맞아 선양·기념사업 나서야

전남대서 89주년 기념 토론회  
광주 거쳐 개성·평양 등 확산  
북한 지역 120여개 학교 참여  
남북한 공동 학술조사 등 필요



1일 전남대학교에서 '세계와 한인 디아스포라가 지지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제89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세계 40여개국에서 지지한 독립운동이지만 9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선양·기념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00여건의 논문이 발표된 국내 연구와 달리 북한지역 학생운동 참가학교 실태조사와 함께 전세계 참여단체 사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재외한인학회, 광주시교육청, (재)한국호남학사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제89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토론회가 1일 전남대학교 사회대 교수회의실에서 '세계와 한인 디아스포라가 지지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재외한인학회를 맡고 있는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와 한인 디아스포라가 지지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90주년선양사업' 주제 토론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남·북한, 영·호남 교류의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성향을 띠며 북한 황해도, 경기도, 함경북도, 평안도 지역 120여개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6·25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며 북한지역 학생운동에 대한 국내자료는 거의 없다. 김 교수는 북한 참가자 개인 정보·재판 자료·참여학교·연료보도·서훈·기념식 등에 대한 자료

확보와 정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국·일본·옛 소련·독일·미국·멕시코 등 전세계 40여개국에서도 지지대회와 후원금 모금을 진행했지만 개별적인 언론보도만 있을 뿐 종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비해 국내는 참가자 3000여명·참여학교 300여개, 참여단체 500여개 기본 자료와 함께 재판자료 200여건, 언론보도자료 5000여건, 단행본·논문 등 1000여건 등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내년 90주년을 맞아 국가차원 선양사업으로 '남북학생 및 한인후손들이 참여하는 공동행사', '북한 지역 참여 학교

에 대한 남북한 공동학술조사', '미국, 멕시코, 쿠바의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세계가 지지한 광주학생독립운동 언론보도 화보집 제작' 등을 제안했다.

국가보훈처 김성민 박사는 '북한지역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양상과 특징'에서 북한 지역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조가 있어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연구결과 1929년 11월 3일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광주학생들의 시위는 목포·나주 등 전남지역에만 국한됐다. 같은해 12월 서울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개성·평양·원산·함흥 등 북한 학생들이 일어나며 동력을 얻는다. 같은 시기 남한에서는 인천상업학교, 강원도 춘천고보, 부산 동래고보 만이 동조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251개 학교 중 북한 지역은 118개교(47%)에 달한다. 정확한 참여학생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김 박사는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북한 지역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조시위는 당시 언론보도와 일제 측 보고서 등에 의존해 개략적인 윤곽만 알 수 있다"며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앞두고 북한지역 현지 조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여성 11명 성폭행 '광주·대전 발발이' DNA 추적으로 15년만에 붙잡았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며 덜미  
2006년 이후 추가 범죄 조사

김모(당시 37·광주시 북구)씨는 2003년 7월 어느날 새벽 젊은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했다. 겹으로는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30대 가장이었던 김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여성을 흥기로 위협한 뒤 두 눈을 가리고, 두 손을 묶었다. 그리곤 성폭행했다. 여성의 지갑에선 돈까지 빼갔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18~22세 여성 11명을 성폭행했다. 광주 북구 6명, 광산구 1명, 나머지 4명은 대전에서 당했다. 당시 광주 북구에 살던 김씨는 가끔 대전으로 가 친한 선배집에서 며칠씩 머무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강도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낮에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몰래 찾았다. 가끔은 밤늦은 시간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몇 시간씩 집 밖에서 기다린 뒤 새벽 무렵 범행했다.

김씨의 범행은 모두 새벽 4시~6시 30분 사이에 이뤄졌다. 여성들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간을 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두 눈에 가려진 여성들은 김씨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일부 여성은 김씨의 몸에서 악취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범인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김씨가 남긴 단서는 여성 11명의 몸에 남긴 DNA 뿐이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특수강도강간 범죄의 공소시효가 DNA를 확보한 경우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 했던 김씨의 범죄는 뜻밖의 사건에서 꼬리가 잡혔다. 지난 2월 전남의 한 점집에서 무숙인

의 보초로 일하던 김씨가 단골 여성 고객을 업무상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7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경찰은 DNA채취 대상이 된 김씨의 DNA를 확보해 지난 9월 광주경찰에 통보했고, 뜻밖에도 광주·대전 '발발이'의 DNA와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곧바로 검거작전에 나서 3일만에 광주 북구에서 공인중개사 보초원으로 일하고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김·경은 김씨가 11건의 범행 모두를 시인했지만, 범행이 워낙 치밀한데다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넘게 범행 공백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김씨가 시인한 11건 모두 DNA가 일치한 범죄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DNA가 미확보된 범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결혼 전 사귀던 여자친구로 신체 일부를 조롱한 이후 여성을 혐오하는 마음과 성집착이 강해졌다. 그래서 일부러 나이 어린여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일 김씨를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광주(7차례) 대전(4차례) 등 11차례에 걸쳐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기소했다.

정수봉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차치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연쇄 강도강간 범인을 검찰과 경찰이 DNA대조 등 끈질긴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할 수 있었다"며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장기미제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범죄는 뜻밖의 사건에서 꼬리가 잡혔다. 지난 2월 전남의 한 점집에서 무숙인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취업 시켜주마” 6명 속여 6800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달 31일 자동차 동호회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속여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A(43)씨 등 6명에게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 취업을 시켰다고 속여 1인당 3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 총 6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현대모비스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공장장 등에게 부탁해 협력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돈 받고 비방 보도... 선거법 유죄·명예훼손 무죄

선거경쟁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전직 군수를 비방하는 보도를 한 지역신문 주필이 선거법은 유죄,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전 합평군수를 비방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신문 주필 A(7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12월 합평에서 중간지를 만든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당시 안병호 합평군수와 군 행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게재·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비방 보도를 하면서 군 입장을 반영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A씨를 기소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보도가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상당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군민의 관심사항이자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군수 경쟁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비방 목적 보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자신을 홍보하고 안 전 군수를 비방해달라는 취지로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윤행 합평군수는 지난달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고3 시험지 유출’ 학부모·검찰 모두 항소

고3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와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여·52)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B(5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학부모에게 징역 3년, 행정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여친 시비 폭행사건 조사하다... 조폭들 무더기 철창행



○“여자친구를 돌려달라”며 결투(?)를 신청한 20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조폭력배가 동료 조폭들과 함께 무더기 철창행.

○1일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신도(22)씨 등 국제PJ파 조직원 24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기강을 잡는다면 후배 조직원 등을 대상으로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 등을

수십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것. ○김·경은 지난해 1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소재 한 주차장에서 신씨 등 5명이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조폭으로 활동한 사실을 알고 수사를 확대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여자친구 문제로 발생한 단순한 싸움이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중간 보스급 등 행동대원 수십명을 붙잡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